

#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9 September 2018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September  
2018년 9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상설공연 Sunday Performances in September  
2018년 9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 9월 토요 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September, Every Saturday 3:00 pm, Museum Auditorium

2018년 9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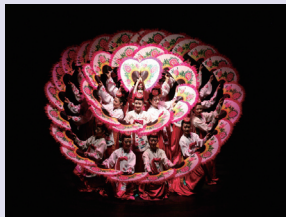
제1057회

2018 관객과 함께하는 여성국극

### 『新 춘향전』 공연

2018 Performance with Audience, 『New Chunhyangjeon』

09.01.



제1058회

### 송정은 무용단 “춤, 멋과 신명”

“Dance, Style and Excitement” by Song Jeongeun Troupe

09.08.



제1059회

장명서의 MSG project #1

### MESSAGE

Jang Myeongseo's MSG project #1 “MESSAGE”

09.15.



제1060회

### 메밀꽃 필 무렵

When the Buckwheat Flower Blooms

09.22.



제1061회

### 김선정무용단의 ‘춤의 풍경’

‘The Scenery of Dance’ by Kim Seonjeong Dance Troupe

09.29.

## 9월 일요일리민속무대

Performances in September, Every Sunday 12:00 pm, 2:00pm, Museum Courtyard

2018년 9월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442회

### 나들이굿

Naduligut

09.02.(2:00pm)



제443회

관객들과 함께하는 한가위맞이

### 단심줄강강술래

Danshimjul Ganggangsulae Celebrating the Hangawi

09.09.(12:00pm, 2:00pm)



제444회

### 여연화재수(如蓮花在水)

Yeoyeonhwajaesu: Like a Lotus Follower Floating on the Water

09.16.(12:00pm, 2:00pm)



제445회

### fun fun 한판

Fun & Fun, Exciting Traditional Performing Arts

09.23.(12:00pm, 2:00pm)



제446회

### 날뫼북춤 비상하다

The Soaring Nalmoebukchum

09.30.(12:00pm, 2:00pm)



#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9월 공연일정 미리보기 Performance Schedule in September

제1062회	10.06.(토)	더미소와 함께하는 별난 소리판! 이은희(성악)
제447회	10.07.(일)	연희크루 진대의 산신령과 버나 박건우(연희)
제1063회	10.13.(토)	얼쭈 '춤으로 즐기다!' 이지선(무용)
제448회	10.14.(일)	봉산탈춤으로 한번 놀고 가려던~! 이가은(탈춤)
제1064회	10.20.(토)	이선&가야토리와 함께하는 가야금 병창 Concert 이선(기악)
제449회	10.21.(일)	풍류한판, 와따다움! 한춘진(연희)
제1065회	10.27.(토)	공감(共感) 예무(藝舞)를 말하다 송미숙(무용)
제450회	10.28.(일)	전통연희 프로젝트 good 타임 이찬행(연희)

※ 공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민속  
한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2018 관객과 함께하는 여성국극 『新 춘향전』 공연

2018 Performance with Audience, 『New Chunhyangjeon』

2018.09.01. SAT(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여성국극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판소리의 창(唱)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연기와 춤, 소리 등이 결합된 '新 춘향전'을 준비하였다. 여성국극단은 1948년 창단되어 여성들만이 단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여성창극단으로서 여성 공연자가 남성의 연기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오늘 준비된 '新 춘향전'은 판소리 '춘향가'로부터 정작된 소설을 국극으로 공연하는 작품이다. 춘향과 몽룡의 계급을 초월한 사랑과 그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을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옛 사회상을 표출하고 깊은 감동을 전달하고자 한다.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마당 놀이 형식의 풍자와 해학이 가미된 이번 공연은 박물관을 찾은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The female troupe, Yeoseonggukgeukdan prepared a modern style performance titled 『New Chunhyangjeon』 based on the epic chant(*Pansori*) with a blend of acting, dancing, and singing. Since Yeoseonggukgeukdan was established in 1948, it has been the only female troupe for Korean classical opera having female performers for male roles.

Today's performance, 'New Chunhyangjeon' is based on the Korean novel, which is from *Pansori* 'Chunhyangga'. By showing the process of recovery regarding the love of Chunhyang and Mongryong(main characters of Chunhyangga), which transcends the social classes. The performance expresses the traditional social aspects while delivering a deep impression to the audience. This performance, which is a satirical love story will provide a fun and exciting time for the audience.

## 공연순서 Program

01 서곡(군무) Seogok(Formation Dance)

03 커튼콜(군무) Curtain Call(Formation Dance)

02 본 공연 Main Performance



대표	허숙자 (사)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이사장
연출	박황춘
소리지도	김금미
출연	춘향:김선미/ 몽룡:전예주/ 변학또:허숙자/ 집장사령:운봉:이미자 이방:곡성:임일애/ 사령:남덕봉/ 무용:이하늘, 이소녕, 문지윤
반주단	이진웅(대금), 장현아(장구)



# 나들이굿

Naduligut

2018.09.02. SAT(일)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오늘은 바쁜 현실에서 벗어나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연희 공연을 준비하였다.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소리'가 공연의 막을 연다. 이어서 사물놀이 악기 중에 바람을 표현하는 징의 소리에 선율을 만들어내는 악기를 더해 국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바람소리'가 진행된다. 심장을 울리는 전율을 통해 관객들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신명소리', 우리나라 대표 민요곡을 모은 '우리 소리', 커다란 꽃처럼 생긴 부포를 사용하여 흥겨움을 전달하는 '판굿과 부포놀이'까지 마치고 나면 오늘의 무대는 마무리된다.

Today's stage is consisted of exciting traditional performances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enjoy with their family, lovers, and friends.

The performance titled 'Chukwonsori - Sounds of Praying' wishes for family's peace and well-being, will start the show. By enhancing the sound of *Jing*(gong, one of the main instruments used in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s presenting the sounds of wind) with melodic instruments, 'Baramsori - Sounds of Wind' will continue the sequence showcasing the diversity of Korean music. Through the thrilling heartwarming sounds, 'Shinmyeongsori - Sounds of High Spirits' will release all the stress for the audience. Then, 'Woorisori - Sounds of Korean'; medleys of Korea's representative folk songs, and 'Pangut and Buponoleum'; performing arts along with a flower decoration called *Bupo* will convey the exciting atmosphere while wrapping up today's stage.

## 공연순서 Program

- |  |   |
|--|---|
| 01 축원소리<br>Chukwonsori - Sounds of Praying           | 04 우리소리<br>Woorisori - Sounds of Korean |
| 02 바람소리<br>Baramsori - Sounds of Wind                | 05 판굿과 부포놀이<br>Pangut and Buponoleum    |
| 03 신명의 소리<br>Shinmyeongsori - Sounds of High Spirits |   |



대표 장지성(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연희단'지성'대표)

출연 박지웅, 최동환, 김윤만, 조용배, 남영희, 윤보영, 박경진

# 송정은 무용단 “춤, 멋과 신명”

“Dance, Style and Excitement” by Song Jeongeun Troupe

**2018.09.08. SAT(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무대에서는 ‘춤, 멋과 신명’이라는 제목으로 여태까지 많은 극찬을 받았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선보인다. 궁중무용을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창작된 ‘태평성대’가 첫 무대를 연 후에는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검기무’를 현대적 음악에 맞게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재탄생시킨 ‘검기무’가 무대의 흥을 이어나간다. 이외에도 무용극에 속하는 춤으로 역동성이 특징적인 ‘한량무’, 신분의 벽을 딛고 사랑을 이룬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를 춤으로 만든 ‘사랑가’, 춤추는 이의 내면세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살풀이’ 등 다채로운 무대가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무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하학적 구도에 담아 한국적 매력을 표출하는 ‘부채춤’이 장식한다. ‘부채춤’은 신비롭고 화사하면서도 은은한 멋이 특징이다.

관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화려한 전통춤이 주는 멋과 신명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title, ‘Dance, Style and Excitement’, this stage has a collection of performances which have received critical acclaim. After opening with ‘Taepyeongseongdae’ which modified the court dance in to a modern style. ‘Geomgimu’ will be preformed next. ‘Geomgimu’, which has been around since the Silla Kingdom(BC57~AD935), has been modified into a sophisticated and sensual style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music. In addition, various stages are prepared to liven the atmosphere of the stage. ‘Hallyangmu’; characterizing its dynamic movements, ‘Sarangga’; the dramatic love story of Chunhyang and Mongryong, who overcame their differences of being from separate social classes, and ‘Salpuri’; artfully expressing the inner world of the dancer.

The last stage is ‘Buchaechum’, this fan dance showcases the elegance of Korean dance by illustrating the beauty of nature in a geometrical composition using fans and graceful gestures. It shows a mysterious, but bright and elegant style of Korean dance.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enjoy the flair of this colorful traditional dance.

## 공연순서 Program

- |                           |                      |
|---------------------------|----------------------|
| 01 태평성대 Taepyeongseongdae | 05 살풀이 Salpurichum   |
| 02 검기무 Geomgimu           | 06 쟁강춤 Jaenggangchum |
| 03 한량무 Hallyangmu         | 07 부채춤 Buchaechum    |
| 04 사랑가 Sarangga           |                      |



**대표** 송정은(서울기독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연출** 조남규

**출연** 김종우, 채수정, 이경민, 박선아, 전정화, 김경주, 김하경, 최유림, 김지선



# 관객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맞이 단심줄강강술래

Dansimjul Ganggangsullae Celebrating the Hangawi

2018.09.09. SUN(일) 12:00 p.m. /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판굿을 모아놓은 ‘볼거리 마당’과 관객들과 대동놀이를 함께하는 ‘놀거리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길에서 모든 일이 쉽없이 펼쳐지는 것 같이 풍물패의 굿가락도 쉬지않고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길굿’이 시연된 후에 ‘문굿’이 펼쳐진다. ‘문굿’은 하늘과 땅에 오늘의 축제를 알리고 모든 경계를 너머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후에는 자신을 밝아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마당굿’과 개인이 악기별 기량을 뽐내는 ‘개인놀이’가 결합된 ‘마당판굿’이 진행된다.

‘볼거리 마당’이 끝나고 나면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놀거리 마당’이 한바탕 벌어진다. 관객들은 공연자들과 함께 ‘단심줄강강술래’에 참여하며 우리민족의 흥과 신명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관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 타악연희 작품을 편하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age is consisted of ‘Performing Stage’; medleys of traditional acrobatic performing arts and ‘Entertaining Stage(Daedongnori)’; traditional maypole dance. As how the life is constant as walking on the road, the performer’s continual rhythmical playing is titled ‘Gilgut’. In order to inform the beginning of the festival, ‘Mungut’, a wishful performance opening communications and connections beyond all boundaries will open the stage. In sequence, performers conduct a rite, *Jisin-bapgi* to scare misfortune away and bring forth good luck in ‘Madanggut’. Afterwards performers present their individual skill with musical instruments in ‘Madangpangut’.

After finishing the part of ‘Performing Stage’, ‘Entertaining Stage’ will then take a place. To strengthen community spirit, the audience is invited to participate in taking the colorful ribbons attached to the pole and weaving them together with assistance from the performers in ‘Dansimjul Ganggangsullae’.

## 공연순서 Program

### 01 볼거리 마당(전통판굿) Performing Stage(Traditional Pangut)

- 기굿 Gigut
- 길굿 Gilgut
- 문굿 Mungut
- 마당판굿 Madangpangut

### 02 놀거리 마당(대동놀이) Entertaining Stage(Daedongnori)



**대표·연출** 서신석(전통연희단에도통천대표)

**출연** 서신석, 정일협, 최보근, 구자호, 정선희, 노진우, 민재경, 김선범, 김재균, 선봉주, 유선화, 송숙진, 조다애, 홍성준, 손화자, 박성자, 정정자, 정청자, 맹경자, 최길례, 양승임, 한창자, 김홍배, 유선복, 김철호, 신달현, 최운경, 최철자, 김현순, 서연숙, 에얼렌, 게이아, 아물야, 카리사, 하인구, 미노루, 노리코, 정민우, 서여원, 정은경, 서정원



# 장명서의 MSG project #1 MESSAGE

Jang Myeongseo's MSG project #1 "MESSAGE"

**2018.09.15.** SAT(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성악의 한 갈래인 '정가(正歌)'를 기반으로 한 음악들로 구성되었다. 정가의 기본틀인 우리나라의 전통가곡과 시조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만든 자작곡까지 여러 음악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김기수 선생의 고가신조 '춘산에 눈 녹인 바람'과 '나비아 청산가자'를 새롭게 엮은 '봄바람'이 무대의 첫 막을 올린다. 전통음악에서 사용된 악조 중 하나인 '우조(羽調)'로 부르는 '바람은'과 '월정명', 임에 대한 마음을 담아 부르는 '복두칠성'이 그 뒤를 잇는다. 이외에도 꿈을 위해 걸어가는 모두의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기도하며 만든 '꿈', 많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노래한 'The Road', 소중한 사람을 위해 노래하는 '곁에' 등 다양한 자작곡들이 준비되어 있다.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시조에 가락을 얹어 노래했던 옛 선비들처럼 이 시대의 언어에 의미를 담아 노래하는 공연자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정가의 장르적 한계를 벗어나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This concert is composed of music based on 'Jeongga(正歌)' which is a branch of traditional vocal music. A variety of music is prepared including traditional Korean songs and poetry as well as the performer's original compositions. The first performance will be *Gogashinjo* (traditional lyrics with modern melodies composed by Kim Gisoo) titled 'The Wind Melting the Snow in Chunsan Mountain' and 'Spring Breeze', which is a new rendition of a classic song called 'Nabia Cheongsan Gaja'. The next performance is *Ujo* style songs, 'Wind is' and 'Woljeongmyeong'; the style is from the melodies used in traditional music. Then 'The Big Dipper' showcases soulful songs for lovers. 'To Tomorrow'; a song for people who wish their dreams will come true. 'The Road'; a song about life and how to make a decision with unknown outcomes. 'By Side'; a song for precious people in a person's life. Similar to old philosophers who sang the song in the *Sijo* (poem) style.

\* Yeochang Gagok (Korean Classical Lyric Song for Female Singer)

\* Gogashinjo (traditional lyrics with modern melodies composed by Kim Gisoo)

## 공연순서 Program

- |  |   |
|--|---|
| 01 봄바람 Bombaram  | 05 자작곡 '내일로'<br>Original Compose, 'To Tomorrow'   |
| 02 여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br>Yeochang Gagok Ujo Urak 'Wind is'                           | 06 자작곡 'The Road'<br>Original Compose, 'The Road' |
| 03 우조시조 '월정명'<br>Ujo Shijo 'Woljeongmyeong'  | 07 자작곡 '곁에'<br>Original Compose, 'By Side'        |
| 04 여창가곡 계면조 평릉 '복두칠성'<br>Yeochang Gagok Gyeomyeonjo Pyeongrong<br>'The Big Dipper' |   |



**대표** 장명서(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전수자)

**사회** 장명서

**출연** 장명서(노래), 박나영(가야금·양금), 김주희(거문고), 김태현(대금), 이근재(피리·생황), 고윤진(해금), 주지영(타악), 손성국(피아노)



# 여연화재수(如蓮花在水)

Yeoyeonhwajaeu: Like a Lotus Follower Floating on the Water

2018.09.16. SUN(일) 12:00 p.m. /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여연화재수(如蓮花在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연꽃처럼 유구한 역사 속에서 꽃피운 우리전통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보여주고자 구성되었다. 3개의 북을 양옆과 뒤에 놓고 연주하는 ‘삼고무’를 시작으로, ‘장검무’, ‘설장구’ 무대를 통해 우리 가락의 흥겨움을 전하고 늦쇠 판 무구를 부딪혀 소리를 내는 ‘향발무’로 관객들을 아름다운 정취로 이끌고자 한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경상도의 대표 아리랑인 밀양아리랑을 변주한 ‘아랑의 꿈’과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 유명한 드라마들의 OST가 가야금으로 연주된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축제한마당에서는 사물연주와 소고를 든 무희들의 춤사위가 어우러져 관객들을 신명나는 무대로 이끌어 낼 예정이다.

Under the title of ‘Yeoyeonhwajaeu(如蓮花在水)’, the stage is elaborated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art that represents a blossoming lotus flower floating on the water in the long history of Korea. Likewise rhythmical beats by three drums of ‘Samgomu’, open the stage, ‘Janggeommu’ and ‘Seoljanggu’ will enliven the followings. ‘Hyangbalmu’ will be carried out with a small percussion named *Hyangbal* presenting glamorous yet rhythmical gestures. On the following stages, ‘Dreams of Arang’, which edited Gyeongsang-do’s regional representative folk song titled *Milyang Arirang*, and famous drama OSTs such as ‘Descendants of the Sun’ and ‘Goblin’ are played in the *Gayageum*(zither).

Lastly, exciting percussion ensemble, ‘Samulnori’ along with dynamic movements of *Sogo*(handed drum) dancers will dazzle the audience.

## 공연순서 Program

- |                   |   |
|-------------------|---|
| 01 삼고무 Samgomu    | 05 향발무 Hyangbalmu                                 |
| 02 장검무 Janggeommu | 06 화초타령, 아랑의 꿈<br>Hwachotaryeong, Dreams of Arang |
| 03 설장구 Seoljanggu | 07 사물놀이 Samulnori                                 |
| 04 부채춤 Buchaechum |   |



**대표** 장윤실(평화예술단 연 단장)

**출연** 이재일, 이금주, 김루하, 한윤지, 김연숙, 김예영, 김은정, 정태연, 조줄희, 박민지, 이소현, 강두리, 김명주, 박채원, 김민경, 오유라, 김루하, 제민희, 최연지, 김민정, 윤지혜, 박인옥

# 메밀꽃 필 무렵

When the Buckwheat Flower Blooms

2018.09.22. SAT(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초가을 저녁에 만나는 연인들처럼 궁중정재와 민속춤이 만나 소통하는 설렘을 예술적 춤사위를 통해 보여주고자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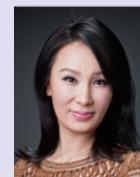
무대의 처음을 여는 '춘앵전'은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모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춤으로 꾀꼬리를 상징하는 노란색의 의상을 입은 무용수가 오색한삼을 양손에 끼고 꽃뚝자리 위에서 추는 독무이다. 이후에는 제비처럼 날렵하게 허리를 움직이며 빙빙 도는 연풍대 동작이 일품인 '검기무', 전라도 민요장단에 맞춰 우리 무용의 멋과 자태를 뽐내는 '교방무'가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호남지방 기생춤의 성향을 잘 간직하고 있는 '호남산조춤', 조선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모습을 표현한 '한량무'도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작품인 '살풀이춤'은 깊은 호흡과 절제로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우아하게 표현하며 대미를 장식한다.

Like how lovers meet in the early autumn evenings, this stage is designed to show the harmony between the court and the folk dances through its artistic movements.

The first stage, 'Chunaengjeon' is a graceful solo dance composed by Prince Hyomyeong, the son of King Sunjo(1800~1834) in order to celebrate his mother's birthday. As symbolizing the nightingale, a dancer dressed in yellow costumes along with colorful fabric extensions on her hands, dances on a flower mat. Then, 'Geomgimu' shows off the stylish dance swinging like a swallow. 'Gyobangmu' will present style and figures of Korean dance in accordance with Jeolla-do province's regional folk rhythm. In addition, 'Honam Sanjochum', which is well preserved the Honam regional artistic dance style, and 'Hallangmu', which expresses the feature how the scholars of Joseon Dynasty enjoyed the nature, continue the sequence. The finale, 'Salpurichum' expresses the process of changing emotion from sadness to happiness through graceful gestures.

## 공연순서 Program

- |  |                               |
|--|-------------------------------|
| 01 고을사 월하보에...(춘앵전)<br>Goeulsa Wolhaboe...(Chunaengjeon) | 04 簫花香(호남산조춤) Honam Sanjochum |
| 02 弄劍(검기무) Geomgimu                                      | 05 한량무 Hallangmu              |
| 03 호남 교방무 Honam Gyobangmu                                | 06 暑風寒鄉(살풀이춤) Salpurichum     |



대표 장민하(현 국립국악원 무용단 지도단원)

출연 장민하, 백진희, 김혜영, 이지연, 유재연, 백경우



# fun fun 한판

Fun & Fun, Exciting Traditional Performing Arts

2018.09.23. SUN(일) 12:00 p.m. /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재창작하여 만든 즐겁고 재미있는 한판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고자 준비하였다. 전통연희의 특성을 젊은 예인의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웅장함과 역동성을 표현한 ‘울림’과 접선부채의 아름다운 곡선에 한국무용의 정서와 멋을 담은 ‘나리다’(부채입춤)이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작품은 경기도당국의 지역특색이 담긴 음악과 복과 명을 빌어주는 지전춤으로 구성된 ‘도락(道樂)’인데 이는 관객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국악공연이 될 것이다. 마지막 무대는 ‘한판’이 장식한다. ‘한판’은 관객들이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버나, 아기사자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다. 관객들은 연희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전통연희와 우리음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재미있는 것이란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The stage will present fun and interesting modernized traditional folk performances. Under the title ‘Ulim’, young artists will expres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usic thorough spectacular yet dynamic sounds. The following stage named ‘Narida’ will convey the emotions of Korean dance through the stunning beauty of Korean fan dance. Then, a shamanic performance titled ‘Dorak’, depicting Gyeonggi-do regional style music and dance(*Jijeonchum*; a ritual dance praying for longevity), will be a refreshing performance for the audience. On the last stage named ‘Han Pan’, performers will offer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raditional performances such as *Beona*(spinning plate) and *Agisaja*(lion dance). The audience will have a great opportunity to become more interested in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performances by interacting with the performers.

## 공연순서 Program

- |  |   |
|--|---|
| 01 울림(대고&설장구)<br>Ulim(Daego & Seoljanggu)                        | 04 난감하네(판소리)<br>‘Having Trouble’(Pansori) |
| 02 나리다(부채산조)<br>Narida(Buchae Sanjo)                             | 05 한판(판굿)<br>HanPan(Pangut)               |
| 03 도락(道樂)(경기도당국 & 지전춤)<br>Dorak(Gyeonggido Danggut & Jijeonchum) | 06 사물놀이<br>Samulnori                      |



대표 감종문(타악연희단대표)

연출 강성은

출연 최웅식, 김용환, 백승희, 신재성, 정은지, 이혜동, 이혜중, 김보미, 강윤지



# 김선정무용단의 ‘춤의 풍경’

‘The Scenery of Dance’ by Kim Seonjeong Dance Troupe

**2018.09.29. SAT(토) 12:00 p.m. /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찬란한 가을 햇살 속의 풍경처럼 풍요로운 우리 춤의 시각적, 정서적 아름다움과 풍부함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화려한 춤사위로 만들어진 꽃이 마치 향기를 품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화간접무’로 시작된 무대는 호남지방 씻김굿인 ‘지전춤’,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가’로 이어진다. 차분하면서도 애절한 매력을 가진 ‘교방굿거리’, 손목에 소리가 나는 쇠파저를 걸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추는 ‘쟁강춤’도 놓쳐서는 안될 무대이다. 한 손에 작은 장구인 경고를 들고 추는 마지막 작품인 ‘경고’의 경쾌하고 화려한 기교까지 펼쳐지고 나면 오늘의 무대는 마무리된다.

As the Autumn sun starts to shine, this stage is designed to showcase the visually stunning and emotional beauty of Korean dance.

The first stage titled ‘Hwaganjeopmu’ presents a colorful dance illustrating how flowers exude their fragrance. The following stages will be ‘Jijeonchum’; Honam region’s shamanic performing arts, and ‘Sarangga’; a love song. Then, ‘Gyobanggutgeori’; a dance having a calm yet sophisticated appeal, and ‘Jaenggangchum’; a rhythmical dance along with jingling steel bracelets are stages that should not be missed. After presenting a cheerful and splendid technique of playing a small hour-glass shaped drum, *Gyeonggo*, today’s stage will be finished.

## 공연순서 Program

- |                          |   |
|--------------------------|---|
| 01 화간접무 Hwaganjeopmu     | 05 쟁강춤 Jaenggangchum                            |
| 02 지전춤 Jijeonchum        | 06 강선영류 태평무<br>Gang Seongwon styled Taepyeongmu |
| 03 사랑가 Sarangga          | 07 경고 Gyeonggo                                  |
| 04 교방굿거리 Gyobanggutgeori |   |



**대표** 김선정(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무용과 교수)

**출연** 이호민, 손수연, 박인혜, 김다솔, 이혜인, 박체민, 김은수, 박예나,  
허소영, 박수빈, 박수현, 이세린, 이유진, 이현주, 최지원



# 날뽕북춤 비상하다

The Soaring Nalmoebukchum

2018.09.30. 12:00 p.m. / 2:00 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오늘의 공연은 대구의 비산동 일대에서 전승되어오는 ‘날뽕북춤’과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물놀이’로 구성되었다. 첫 무대로 선보이는 ‘앓은반 삼도 사물놀이’로 경기, 충청, 호남, 영남지방에서 연주되던 농악가락을 무대형식의 공연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우리가락의 특징인 긴장과 이완, 맺고 푸는 구성이 보여주는 치밀함이 매력적이다. ‘날뽕북춤’은 북으로만 연주되는 경상도 특유의 덧배기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작품이다. 경상도 지역의 특징인 힘찬 가락과 역동적인 몸동작이 특징적이다. ‘상모판굿과 개인놀이’에서 공연자들은 채상을 돌리며 악기를 연주하고 다양한 진법을 구사하며 판굿을 벌인다. 판굿이 끝나면 공연자들이 한 명씩 나와 쇠놀이, 채상고소고, 버나놀이, 열두발상모 등의 개인놀이를 펼치며 자신의 기량을 뽐낸다. 관객들은 공연자와 함께 접시모양의 버나를 주고받으며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Nalmoebukchum’(a farmer’s performance in Bisan village, Daegu city) and ‘Samulnori’(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will be presented in this stage. The opening stage is ‘Anzeunban Samdo Samulnori’, which is comprised of regional folk rhythms originating from provinces such as Gyeonggi-do, Chungcheong-do, Honam and Yeongnam. The ‘Nalmoebukchum’ is a performance incorporating dancing with drum beats, which originated from Gyeongsang-do province. The characteristic of ‘Nalmoebukchum’ is its dramatic movements and strong beats. In ‘Sangmopangut & Solo Performance’, the performers show off their talents by playing one of the individual plays in various formations. At the end of the festival, each of the performers will show acrobatic performing arts such as Soinori, *Chaesanggonori*, *Beonanori*, *Yuldubalsangmo*, etc. Finally, a collaborative performance experiencing *Beonanori*(spinning plates) will unite the musicians and the audience in bliss.

## 공연순서 Program

- 01 앓은반 삼도 사물놀이  
Anzeunban Samdo Samulnori
- 02 날뽕북춤 1~7마당  
Nalmoebukchum 1~7 Movements  
· 정적궁이, 반직굿, 얹어빠기, 다드래기, 물레들기, 허허굿, 오방진  
Jeongjeokgungi, Banjiggut, Eopeobbaegi, Dadeuraegi, Mulaedoligi, Heoheogut, Obangjin
- 03 상모판굿과 개인놀이  
Sangmopangut & Solo Performance
- 04 날뽕북춤 8~12마당  
Nalmoebukchum 8~12 Movements  
· 모듬굿, 개인가락, 살풀이굿, 개인놀이, 덧배기굿  
Modeumgut, Solo Play, Salpurigut, Solo Performance, Deotbaegigut



대표 김주범(전통예술공간 터 대표)

출연 김남해, 김연수, 오현범, 최웅식, 김용환, 정은진, 조형준, 강진숙, 강경자, 객경환, 이춘희, 최화복, 임수미, 이미섭, 박수용, 구연화, 김남순, 최영희, 허은이, 민수진, 정경호, 이재권, 이경미, 한혜련, 정경식, 박미영, 최혜정, 윤진희, 이혜숙, 강다연, 김은인, 김영실, 배정희, 송순호, 염춘자, 이현정, 이효정, 정명국, 정양실, 한은진, 민옥순



#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총괄 | 김종민

기획·책임 | 이기원

연구·기획 | 이해원·강경원

번역 | 윤명아

발행일 | 2018.09

발행처 | 국립민속박물관

디자인 | 주)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 버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 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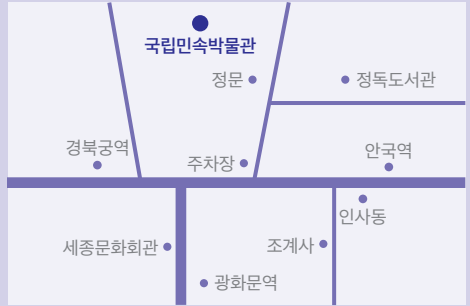
경복궁 주차장 이용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우)03045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Korea (03045)



## 이용안내

### 개관 및 관람 시간

03~08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주말·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 금, 토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1월 1일, 설 당일, 추석 당일

입장료 무료

전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http://www.nfm.go.kr)

